

여가생활의 변화

홍 성 익 (계명대 교수)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효과, 특히 고용창출효과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뿐 사회문화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된 것이 없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문화적 효과가 경제적 효과만큼 가시적인 화폐가치로 환산되거나 수량화되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러 방면에서 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자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여가시간과 여가기회가 증가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장시간노동은 근로자의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을 감소시키며, 여가생활이 매우 단순하고 단조로워지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00)에서도 나타나는데, 취업남성은 휴일시간을 수면과 TV 등 대중매체에 각각 4%와 5%를 더 배분한 것에 비해 교제, 스포츠 및 집 밖의 여가활동에는 각각 2%와 1%를 배분하였다. 또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1)에 의하면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1, 2 순위가 TV시청, 휴식 및 수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 5일 근무제 이후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부족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이후 변화된 근로자가계의 여가생활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을 개인 및 가족의 측면에서 접근한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여가생활 실태는 4가지 측면에서 조사,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와 노동의 관계 인식에서 노동보다 여가가 더 중요하다고 한 비율이 약 57%였으며, 남편들의 경우 여가보다 노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부인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2001)의 조사에서 조사대상가계의 53%가 여가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원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보다 여가를 더 선호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변화된 양상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어 남편들이 부인보다 개인적 여가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남편이 부인보다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욕구와 참여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가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의 영향인지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여가와 노동의 관계인식에서 나타난 남녀의 차이와 함께 후속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주말 여가활동실태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여가시간의 증가로 여가활동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고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여가활동 중 휴식 및 TV 보기를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참여가 증가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과 문화활동, 미디어활동,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등 야외활동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식 및 TV 보기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다음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여 주 5일 근무제나 여가시간의 다소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휴식을 취하거나 TV 시청으로 소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00)나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1)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이나 휴일의 시간을 배분하는 활동이 주로 수면과 휴식, TV 시청으로 보고된 것과 차이가 없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주말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쇼핑, 외식'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미디어 활동, 집에서 휴식하거나 TV보기를 많이 한다는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가족과 함께 하는 쇼핑이나 외식 등의 여가활동참여가 증가됨으로서 여가활동 지출비 중 이전에 비해 외식비, 교통비 및 연료비, 쇼핑비용, 여행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학습관련 강습비 및 교재비, 도서구입비, 레저스포츠 및 신체단련비, 스포츠경기 및 영화관람비 등의 지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에 할애되는 지출이 일회성 및 소비성 지출에

집중되는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가족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여가활동이 일회성, 행사성의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생활의 일부로 일생을 두고 스스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양상을 가족생활, 소비생활, 가사노동, 여가생활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변화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가족여행, 자녀와의 놀이, 부부의 공동여가활동 등의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여가생활의 개념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소속된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시점과 경과년수에 따라서도 여가에 대한 인식과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개발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5일 근무제가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가활동의 참여유형은 여가비 지출양상,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인지와 관련이 있는 연구결과를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여가활동의 참여유형 및 소비지출의 변화현상과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